

주일 예배 순서

- 주현 후 제5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28:6-9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55장(새 15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4번(새 5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순전하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경배하오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사 세상과 정욕으로 오염된 부분이 있는지 밝히 보여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말갭게 씻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믿음과 사랑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뵈옵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심을 밝히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생명을 다하는 겸손과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요한복음 6:26-36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예수님을 추구하는 신앙

봉 헌(offering) 362장(새 217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490장(새 433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2024년 교인주소록이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3. 이화자권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10일)에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복부 종양 제거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믿음속] 야고보서 4:11-12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 스스로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교회를 헤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겸손과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 안에 똑같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부터 고치고 변화되는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소망속] 고린도후서 7:1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우리의 혼과 육을 아우르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원은 반드시 왜곡된 신앙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같은 신자이지만 속사람(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각(혼)이나 가치관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교인이면서도 신앙인 인양 행세하며 살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며 삽시다.

<말씀묵상> 요한복음 6:26-36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30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니 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1.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런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6-29절) 나는 왜 예수님을 부르고 찾습니까?
2.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하며 예로 든 사례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의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30-36절)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갑니까?

❖ 신앙의 본질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나타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보이는 현상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시는 목적은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현실의 필요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마 6:25-33).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육체적 필요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과 피를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먹어야만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들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믿음 삼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요6:14-15) 이기적인 동기에서의 믿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영적 실패인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순전한 신앙이 절실한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